



## 중국 생명보험, 2012년 1~2월 실적부진으로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

왕양비 연구원

- 3월 21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'2012년 1~2월 전국보험업영업상황' 보고서에서 생명보험의 실적부진으로 전체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.
  - 2012년 1~2월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3,279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.3% 증가에 그쳤으며, 이 중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3.8%,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14.8%로 나타남.
  - 2011년 1월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의 시행으로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수입보험료 대부분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1년 1~2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1.5%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,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도 9.3% 증가에 그침.
  - 2011년의 경우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수입보험료 증가율 둔화로 볼 수 있으나, 2012년 1~2월 수입보험료 증가율 둔화는 명실상부한 실적부진이 그 원인임.
  
-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~2월 최대 규모의 보험회사인 중국인수를 포함해 30개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 21개사(총 62개사), 손해보험회사는 9개사(총 52개사)로 나타남.
  - 같은 기간 동안 중국 최대 규모 보험회사인 중국인수는 794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로 6.2% 감소함.
    - 중국인수는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, 중국인수손해보험회사, 중국인수자산관리회사, 중국인수양로보험회사, 중국인수투자회사, 중국인수해외업무공사 등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(그룹)회사이며, 주력 업무는 생명보험임.
    - 2010년 기준 중국인수의 자산규모는 1조 7,461억 위안으로 보험산업 총자산의 34.6%를 차지함.
  
- 생명보험회사의 실적부진은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시행에 따른 판매채널 위축과 금리인상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그 원인으로 분석됨.

- 2010년 10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 활동을 불허하고, 각 은행 지점에 대해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중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가 크게 위축됨.
- 아울러, 지속적인 기준율 인상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은행들이 예금 흡수를 위해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반면, 투자형 보험상품의 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인보험, 특히 생명보험 상품의 경쟁력이 큰 폭으로 하락함.

(매일경제신문, 화원망, 3/27 등)